

'양성평등 특별전북' 실현 나선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올해 6개 분야 14개 핵심 과제 추진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의 변화를 함께 하는 여성·가족 정책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는 경영목표를 밝혔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6개 분야 14개 핵심 과제를 토대로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별전북' 실현에 나선다.

특히 재단 설립으로 이뤄낸 정책연구 기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경영목표는 △여성 직업능력 개발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의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 △사회책임 경영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춘 도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 사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것이 경제활동과 사회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새롭게 위탁받은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향상과 함께 고용유지율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올해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여성과 가족 나아가 도민 전체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일·생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당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선순환 근로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먼저, 공적영역인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불평등과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직장문화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양성평등 가치를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학교를 운영해 지역별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맞춘 양성평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이관된 여성정책 연구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정희 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 원년을 맞아 지역에 꼭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실행력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양성평등 실현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개설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관광·공연·전시 등 통합 정보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예술·관광 서비스, 공연·전시 등 다수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트로 페이지를 삽입해 기존 행정 정보와 문화관광 정보를 분리했으며, 날짜별, 지역별, 키워드별로 통합정보 검색 등 실효성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지역 곳곳의 생생한 소식과 다양한 관광지(위케이션, 유니크메뉴, 관광코스 등) 소개, 그리고 소통 공간까지 마련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대표 페이지'를 구축했다. 대표 페이지는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



지로, 기존 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업 홍보 배너, 사업 공고 및 공지, 재단 공간 안내, SNS 채널 등 대표 메인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사업 공고 일정의 진행 상태(진행 전, 진행 중, 마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어 전북 문화·관광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광 페이지'를 구축했다. 문화·관광 정보 페이지는 '함께·놀이·가자 전북'이

라는 페이지로 새롭게 개설했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문화관광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놀이·전북'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연, 전시, 행사 일정을 만날 수 있는 페이지로, 주회(주관)에 상관없이 누구나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일정은 관리자 승인 후 게시된다. 여기에 당일 진행 중인 행사 정보를 간단히 볼 수 있으며, 조회 수 기반 랭킹을 제공해 인기 높은 문화관광행사를 볼 수 있게 된다.

'함께! 전북'은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인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페이지이다.

'문화관광뉴스'는 지역의 문화관광에 관한 언론보도의 키워드를 노출하고 사이트로 쉽게 연결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끝으로 누리집 이용자 만족에 다양한 정보를 구축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전북의 곳곳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담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플랫폼이 전북 중심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가 모집

교육부 인증 '교육기부 우수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수련·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 관련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하며 이달 15일까지 참가 접수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와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 지원형'과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으로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전국 20여 개 학교 및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성과분석을 통해 이론키 강의 시간

을 축소하고 타격용 기구를 활용하는 '발차기 체험' 등을 강사 지원형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태권도원을 찾는 학교·기관은 전자호구를 활용한 '겨루기 체험'과 태권도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교육부 진로체험 플랫폼인 '꿈길'에 접속 후 태권도 진로체험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지난 2월 27일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에서 양오봉 총장과 황성수 관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오픈식이 열렸다.

'뜨거워진 지구, 숲이 해답이다' 특별전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탄소중립 중요성 알리기 위한 특별전 개최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황성수)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뜨거워진 지구, 숲이 해답이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자연사박물관에서 양오봉 총장과 황성수 관장 등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오픈식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탄소저장고, 탄소제로를 선도하는 JENU 등 총 4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수목과 목재, 전북대학교 목조 건축물의 탄소저장량 등을 전시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 수리부엉이, 매, 독수리 등 야생동물 박제를 관람할 수 있

으며 50여종의 재감 무게 비교체험과 현미경으로 나무의 미세구조 관찰하기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그리기, 나만의 목조주걱 짓기 등 다양한 체험과 관람객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됐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특별전이 탄소저감 공감대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구와 인류가 더불어 공존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바로 지금 나무부터' 한걸음씩 앞장서겠다는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성수 관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지구의 현재 모습과 나무, 숲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참가자 공모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 축제 기간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무대에 오를 젊은 소리꾼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소리축제에 따르면 브랜딩 공연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는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각 바탕별(적벽가,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로 1명씩 총 5인의 소리꾼을 모집한다. 선정된 소리꾼들은 올해 소리축제 기간 중 무대에 오른다.

참가 자격은 1988년부터 2005년생까지로 60분 이상의 소리가 가능한 소리꾼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공연은 바탕별 60분씩 연장하는 형식으로 소리 대목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결들인 릴레이 판소리 형태로 진행된다. 공연 내용에 따른 본인만의 특별한 콘셉트 제안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리꾼은 오는 19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프로필 사진 등과 함께 최소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녹음한 소리 음원 파일을 이메일(soriprogram4@sofestival.com)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해당 음원 파일을 토대로 판소리 전문가 3인의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며, 28일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063-232-839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